

렌즈에 담긴

# 심과 리미 자연의 순간들

가을의 문턱에서 몰아닥친 폭우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.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. 서울 광화문 광장이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광장 총면적이 넓어지고 키 큰 나무도 많아졌어요. 지난 5월 청와대 개방, 7월 창경궁과 종묘 연결 보행로 복원 등을 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중심부 녹지공간이 많이 넓어졌습니다. 아울러 시민들의 행복과 기쁨도 커지면 좋겠습니다.

글 조보희 기자



1  
2

1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강 둔치주차장에서 열린 칠옥수수축제장 초가집에 옥수수가 매달려 있다.  
이상학 기자

2 연일 내린 폭우로 한라산 백록담에 물이 가득 차 있다.  
독자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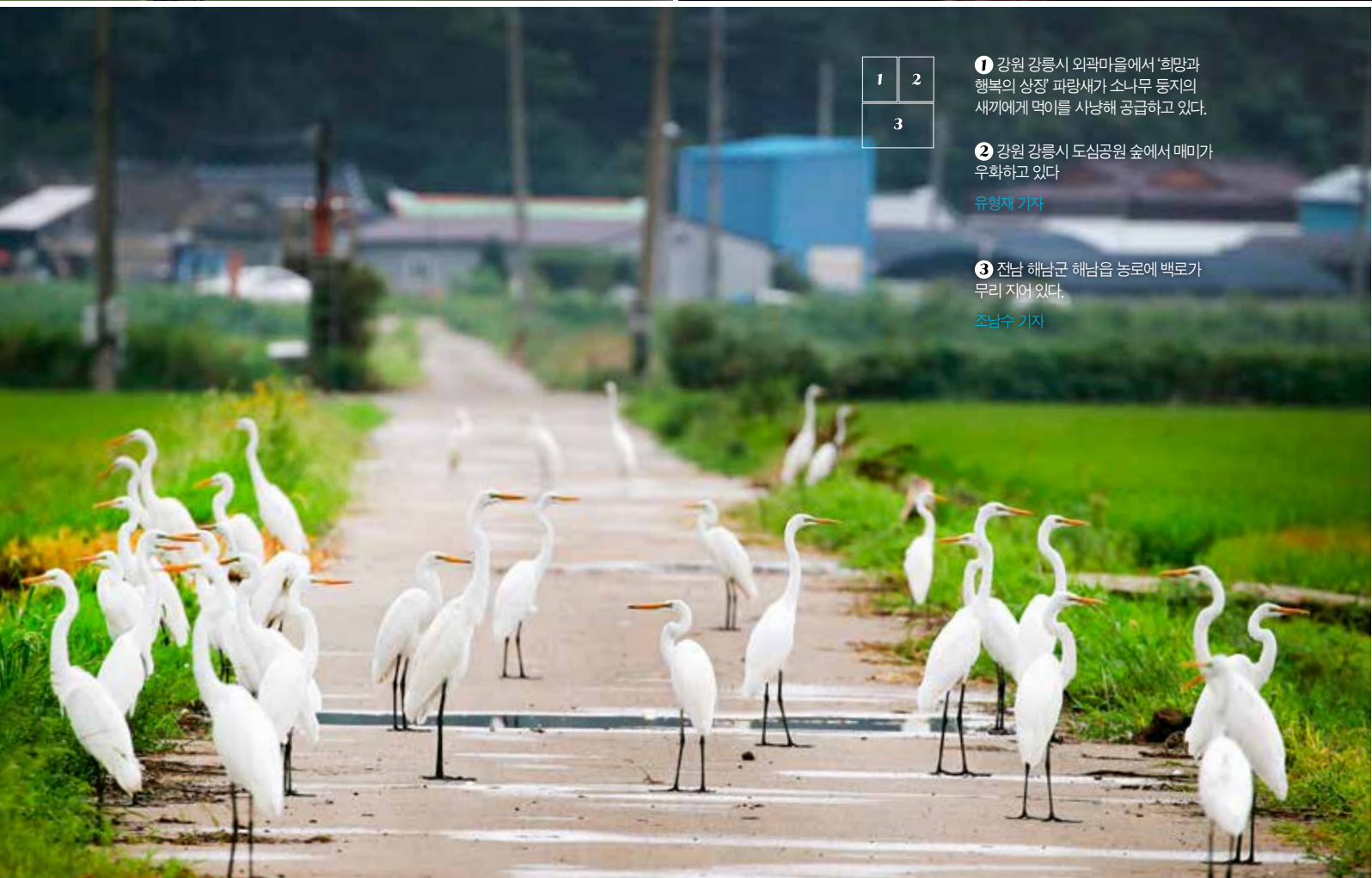


3  
4

3 경남 거창군의 한 농가에서 갓 수확한 홍고추를 벌레 말리고 있다.  
거창군 제공

4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에서 열린 제9회 원천마을 조롱박 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조롱박 사진을 찍고 있다.  
조성민 기자





1	2
3	

❶ 강원 강릉시 외곽마을에서 '희망과 행복의 상징' 피랑새가 소나무 등지의 새끼에게 먹이를 사냥해 공급하고 있다.

❷ 강원 강릉시 도십공원 숲에서 매미가 우화하고 있다

유형재 기자

❸ 전남 해남군 해남읍 농로에 백로가 무리 지어 있다.

조남수 기자



4
5

❹ 강릉시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아트 아이스 쇼 '지쇼(G-SHOW) 용의 꽃'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.

유형재 기자

❺ 전남 구례 화엄사 화엄원 마당에서 열린 '모기장 영화음악회'에서 참가자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.

백승렬 기자

